

탄소중립 나무 심기 선언만 있을 뿐 실천전략 없다

청정 제주, 숲이 미래다 4

3. 조림정책 실태와 방향

☞탄소중립과 제주 실천계획은

도 2050 맞춰 나무심기 등 다양한 저탄소 사업 전개
신규 조림 갈수록 힘들어
대체 조림 체계적 접근을

2050탄소중립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탄소중립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산림청은 지난 1월에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t을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30억 그루 조림 계획 중 1억 그루는 도시숲 등에, 3억 그루는 남북협력력을 통한 북한 황폐지 복구를 목표로 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경영을 통한 조림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숲은 30년 이상 늙은 나무들이 대부분이라 탄소 흡수능력이 떨어진다. 이들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구상이다. 조림을 위해 늙은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심기를 위한 벌기령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숲의 72%는 30년 이상 된 나무로 들어차 있다. 산림청은 탄소흡수량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30년 동안 이런 늙은 나무를 베어내겠다는 것이다.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침엽수는 나무나이 30살, 참나무 같은 활엽수는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고 주장한다.

신규 조림이나 재조림도 아니고 잘 자란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산림청의 시각과는 달리 나무는 오히려 수령 30년이 지나면 탄소 흡수능력이 증가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숲은 탄소흡수 효과가 탁월하다. 그렇지만 나무나 숲의 효과를 탄소흡수량만으로 따지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단편적인 시각이다. 탄소흡수능력은 나무나 숲의 일부 기능일 뿐이다.



길게 뻗은 비자림로 양옆으로 1970년대에 식재된 삼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가운데 벌목한 공간은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베어낸 구간이다. 이윤형기자

숲의 공익적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의 공익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국민 한 사람에게 연간 428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76조원) 이외에 산림경관과 토사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에 기여하고 있다.

부계획,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 4월 19일 도정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35개 기관·기업·시민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인식을 확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제주도는 2050 탄소중립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선언만 있을 뿐 탄소중립과 관련 산림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조림정책이나 방향 등 실천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는 2019년부터 제주도가 제주시·서귀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나무심기 사업들 외에 제주도 차원에서 산림청의 2050탄소중립에 맞춘 산림분야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탄소흡수원 확충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 제주지역의 기후와 특성을 고려 경제·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조림해 나가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

지만 이를 뒷받침할 계획은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생애주기별 내나무 갖기 행사, 범도민 무료 나무 나누어주기 캠페인, 탄소흡수원 나무심기 범도민 캠페인 등 이벤트성 행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제6차(2018~2037년) 산림계획으로 제주도는 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 3660ha(경제수 조림 60ha, 큰나무 공익 조림 1200ha, 대체 조림 2400ha) 조림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대체 조림 면적이 2400ha에 이른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도로 확장 등으로 나무가 잘려나가는 데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산림면적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신규 조림할 곳도, 대체 조림할 곳도 갈수록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의 조림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9~1988) 기간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3만7282ha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10년간 연평균 3700ha 조림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1989년(428ha 조림)부터 조림면적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광복 후 혼란기를 거쳐 복구단계에 접어들면서 치산녹화사업에 의해 무임목지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다. 또한 임야라도 방목지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림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 신규 조림은 갈수록 힘들다. 신규 조림은 최소한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는 신규 조림을 할 곳이 없다. 사유지인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가상승 등을 기대하는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적 이유로 제주도에서 신규 조림은 거의 힘들다. 제주도는 실제 산지에 식재하고 있는 경제수 조림을 신규 조림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조림으로 추진한 경제수 조림은 60ha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체 조림을 어떻게 해나갈지 과제로 대두된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수종으로 심을지, 이로 인해 어떤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지 등 면밀한 점검과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 행정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숲·산림정책은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은 물론 청정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만큼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진 축 금
CONGRATULATIONS

해병대 소장




조영수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노형로타리클럽 명예회원으로서
소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아의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참된 군인 및
제주의 아들로 빛내도록 응원합니다.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노형로타리클럽**
회장 한 석 의 회원일동

진 축 금
CONGRATULATIONS

해병대 소장



조영수
(서귀포시 강정동 한양조씨)

해병대 소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양조씨 봉남공손종친회
회장 조영희 의 종친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배문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시지회 회원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0비트'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